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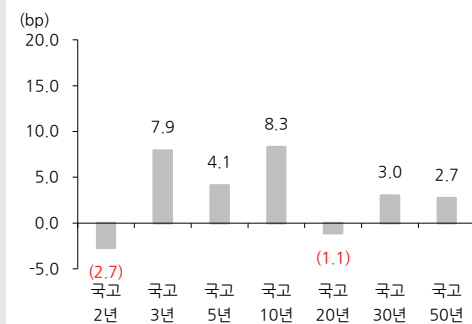
한화 FI Weekly

금통위 Preview: 동결 Paradox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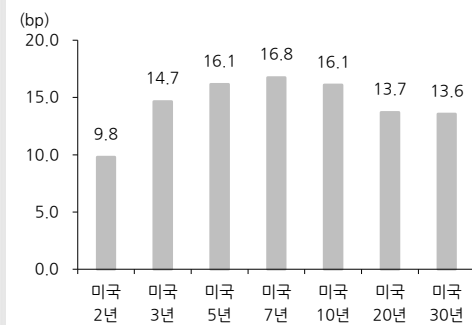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주요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미 국채 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월 금통위, 기준금리(3.00%) 동결 전망

금번 금통위는 기준금리의 동결이나 인하, 그 어떤 결정이 나와도 납득이 가는 회의일 것. 그 만큼 만장일치 결정 역시 나오기 어려움. 당사는 기준금리 (3.00%) 동결 전망 유지와 함께 인하 소수의견 2명 출현 예상

현재 통화정책 운영 환경은 1)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2) 점증하는 경기 우려, 3) 사실상 달성한 물가 목표, 4) 여전한 환율 리스크 등 네 가지로 정리 가능. 이 중 1번과 3번은 인하 시점과 무관하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지지. 2번은 1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가장 큰 이유일 것. 4번의 경우 2월 인하를 예상해볼 수 있는 요인이지만 외환 문제는 다른 정책도구들로 대응해나갈 여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판단. 표면적인 요소들만 보면 1월 인하가 자연스러운 결정

지금은 금융위기가 아니다. 정성적 대응도 이 정도면 충분

기준금리를 3주 연속으로 인하해야 할 정도로 현재 경제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는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 3연속 인하가 단행된 가장 최근 케이스는 2008년 금융위기 시절. 그 당시만큼 현재 한국 경제가 '우려와 부진'을 넘어 '침체'의 영역으로 뚜렷하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음

총재는 지난 해 11월 금통위에서 경기에 대한 통화정책의 사전적 대응을 강조. 신년사에서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 이러한 정성적인 판단은 2번 연속 인하를 단행한 이례적 결정으로도 충분

동결의 역설

한국은행도, 정부도 대외 심리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 이에 대한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은 1월 추가 인하를 통해 한국은행이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12월 총재 이야기처럼 '정책과 경제가 별개의 매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입증하는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바람 분다고 바로 누워버리는 것이 아닌 바람이 불어도 서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1월은 동결이 적절한 결정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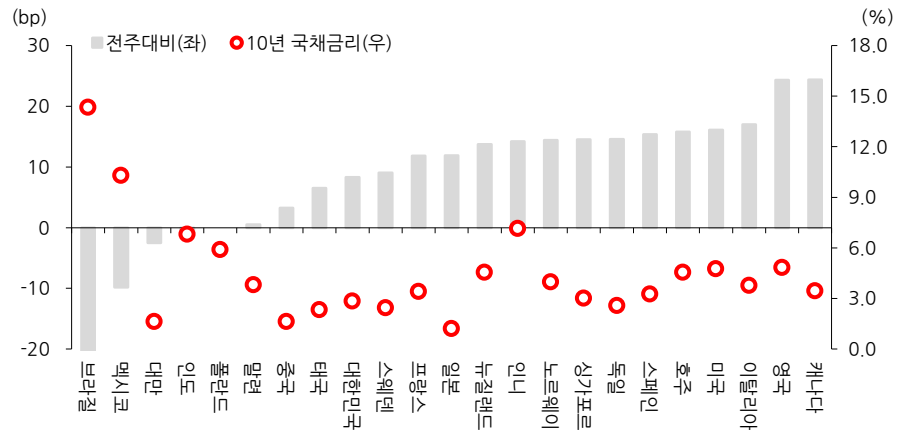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간 채권시장 동향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 지난주 글로벌 국채 금리는 대부분 상승했다. 물가 둔화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 등 재차 불확실성이 커진 유로존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완화 속도조절 필요성이 강해지면서 금리 상승을 이끌었다. 주 후반 미국 고용지표 호조도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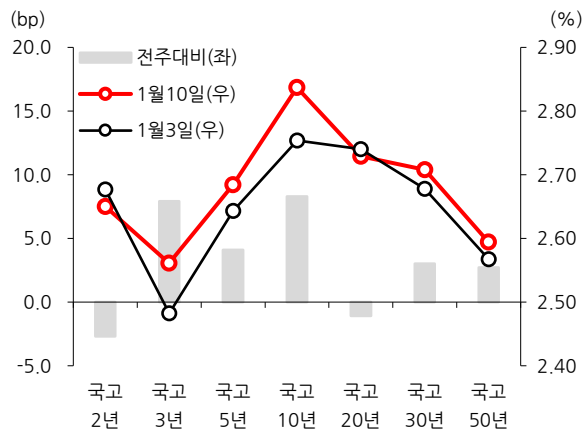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만기별 혼조세 국고채 금리는 만기별 혼조세를 보였다. 대외 금리 상승 압력, 금통위 관련 시장 전망이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는 점 등이 시장 방향성 부재로 이어졌다.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7.9bp, 8.3bp 상승한 2.56%, 2.84%를 기록했다. 국고 2년(2.65%, -2.7bp), 20년(2.73%, -1.1bp) 금리는 하락했다.

[그림1]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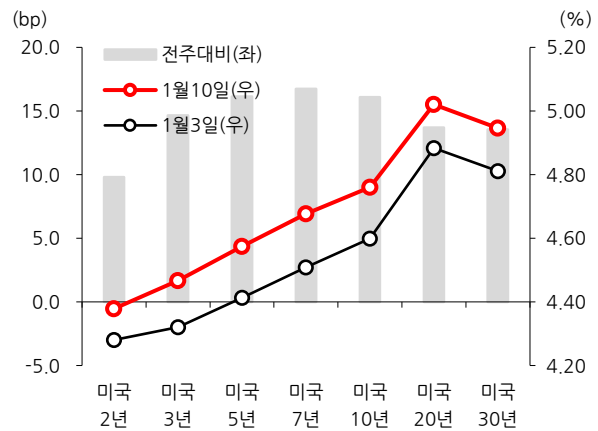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채권시장 전망

1.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줄 때

1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의 동결이나 인하, 그 어떤 결정이 나와도 납득이 가는 회의 일 것이다. 그 만큼 만장일치 결정 역시 나오기 어렵다. 당사는 기준금리(3.00%) 동결과 함께 인하 소수의견 2명 출현을 예상한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Forward Guidance는 3명에서 6명 전원 인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통화정책 운영 환경은
1월 인하해도
이상할 것이 없음

현재 통화정책 운영 환경은 1)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2) 점증하는 경기 우려, 3) 사실상 달성한 물가 목표, 4) 여전한 환율 리스크 등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 중 1번과 3번은 인하 시점과 무관하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기초를 지지한다. 2번은 1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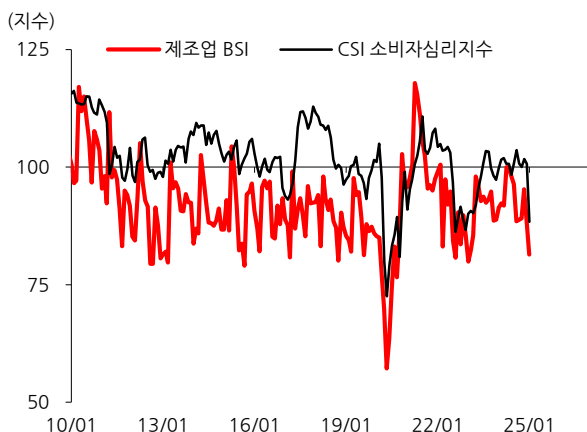
환율 상황도
마찬가지

4번의 경우 2월 인하를 예상해볼 수 있는 요인이지만 외환 문제는 다른 정책도구들로 대응해나갈 여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몇 차례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액션들과 국민연금 스왑 등이 나오면서 1,500원을 향해가던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중반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이창용 총재 예상대로 외환보유고는 4,100억달러선을 유지했다. 이렇듯 표면적인 요소들만 보면 1월 인하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지금이
금융위기 때만큼 힘든가

그러나 기준금리를 3번 연속으로 인하해야 할 정도로 현재 경제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3연속 인하가 단행된 가장 최근 케이스는 2008년 금융위기 시절이었다. 그 당시만큼 현재 한국 경제가 '우려와 부진'을 넘어 '침체'의 영역으로 뚜렷하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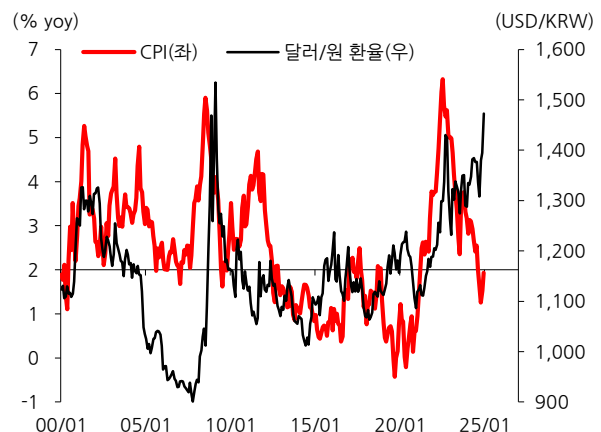
[그림4] 경기는 1월 인하 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주: BSI는 전경련 기준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물가, 환율 급등보다 수위 위축이 더 강하다



주: 2024년 초 대비 국가별 10년 만기 국채금리 변동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성적 대응은
지난 2연속 인하로 충분

총재는 지난 해 11월 금통위에서 경기에 대한 통화정책의 사전적 대응을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 신년사에서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성적인 판단은 2번 연속 인하를 단행한 지금까지의 이례적인 결정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신년사에는 '2025년 성장률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26개국 성장률 평균(1.8%)과 유사'하다는 내용도 있다.

정책 여력도
아껴둘 필요

정책 여력도 동결을 전망하는 이유 중 하나다. 트럼프 1기 한국 경제 흐름을 보면 정말 힘들어지는 시점은 집권 2~3년차(당시 2018~2019년)였다. 이를 이번 2기 정부에 대입해보면 2026~2027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 여력을 조금 아껴둬야 할 이유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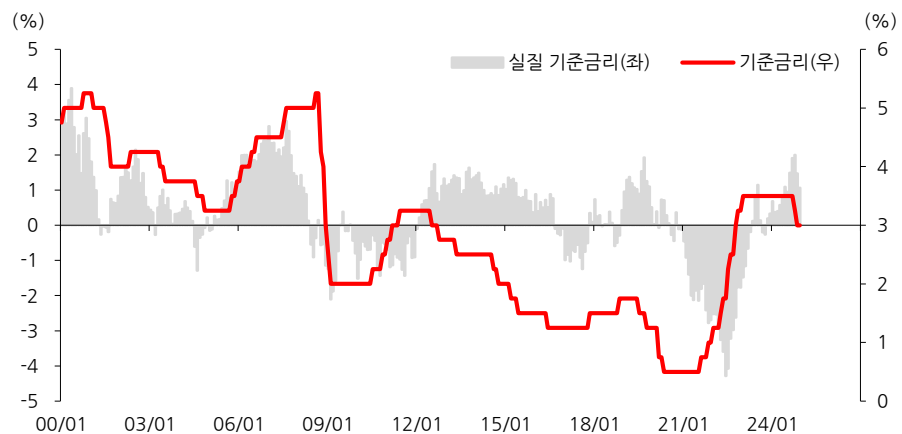
'동결의 역설'도
생각해볼 때

마지막으로 대외에 보내는 메시지다. 한국은행도, 정부도 대외 심리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은 1월 추가 인하를 통해 한국은행이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2월 총재 이야기처럼 '정치와 경제가 별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입증하는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1월은 동결이 적절

바람 분다고 바로 누워버리는 것이 아닌 바람이 불어도 서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1월은 동결이 적절한 결정이다.

[그림6] 3연속 기준금리 인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없음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통화정책 관련 당국자 발언 주요 내용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 일자 | 성명 (직책) | 성향, 투표권 | 발언 주요 내용 |
|-----|---------------------------------|---------|---|
| 1/7 | Lisa Cook (연준 이사) | 중립,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은 조금 더 신중하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 - 시간을 가지고 중립금리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 - 물가와 고용 위험은 대체로 균형잡혀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고용시장이 냉각되었지만 여전히 견조한 수준 |
| 1/7 | Thomas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 | 중립,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압력이 생각보다 크다면 금리 경로 전망도 불투명할 것 - 가계부채는 2000년대 위험 수준에 근접(near the alarming levels of 2000s) |
| 1/8 | Raphael Bostic (아틀란타 연은 총재) | 매파,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 경로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연준도 기준금리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목표 수준에 도달할 전망.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 |
| 1/9 |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 | 중립,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가 물가에 커다란 영향은 주지 않을 것(don't expect tariffs to a significant impact on inflation) - 2025년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지만 그 속도는 물가 진전 여부에 달려있음 - 데이터들이 보여주듯 단기적으로 물가 흐름은 울퉁불퉁할 수 있겠지만 기저효과로 전반적인 연내 상황은 개선될 것 - 최근 물가 둔화 속도가 느려진 것은 주거와 서비스 물가에 기인 - 경제는 대체로 견조한 편.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둔화될 것이라는 징후도 부재 - 장기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상승에 기인. 연준은 이를 조정해 나갈 것 - 무역수지 적자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 - 임금상승률 물가 간 시차를 고려할 때 서비스물가도 결국에는 둔화될 전망 -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 그러나 극단적인 수준(draconian) 관세 부과 가능성은 낮음 - 차기 정부관련 정책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내년 연준의 정책 경로도 매우 불확실할 것 -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도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 2010년대가 예외적인 시기였음이 드러나고 있음 - 정부정책 불확실성으로 12월 SEP 작성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음 |
| 1/9 | Susan Collins (보스턴 연은 총재) | 중립,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 자극 요인일 가능성은 제한적 - 고용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조금 덜어낸 상황 - 현재 상황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 본인은 12우리 인하에 찬성했으나 그 결정 이면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었음 - 주거 부문은 지금도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요소 - 대선 결과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 - 최근 대비 본인 물가에 대해 조금 더 민감해졌음.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2%에 수렴하겠으나 그 경로는 고르지 않을 것(uneven) - 유의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는 좋은 수준 - 경제 상황은 대체로 12월 SEP에 부합 - 연준은 예단하고 움직이지 않을 것. 현재 통화정책은 적절한 곳에 위치 - 고용 측면에서 12월 인하는 보험적 성격에 가까움 |
| 1/9 | Patrick Harker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 중립, X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경제는 여전히 강력함 -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위치. 추가 인하 관련 결정은 데이터에 달려있음 - 일자리 창출 속도는 정상 수준으로 복귀. 전체 고용 상황도 안정되었고, 더 나은 균형을 찾은 상황 - 물가의 목표수준 복귀는 기존 예상보다 오랜 시간 소요 전망 - 계속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필요. 행동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됨 - 커다란 불확실성 속에서는 통화정책 조정을 잠시 멈추는 것이 적절 - 장기 기준금리 수준도 불명확 |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 일자 | 성명 (직책) | 성향, 투표권 | 발언 주요 내용 |
|------|-----------------------------------|---------|---|
| 1/10 | Jeffrey Schmid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 매파,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는 중립수준(where it needs to be for the longer run)에 근접 - 추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점진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해야 함 - 고용시장은 약해졌지만 지금도 건전한 수준(healthy) - 연준 자산은 국채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treasury-only holdings). 자산 규모의 추가 축소 기대 - 연준은 양대 책무 달성에 상당히 가까워져 있음(pretty close) - 물가 압력은 계속해서 약해질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 고용과 성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 중 - 2026년까지도 물가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 물가 안정의 마지막 단계가 가장 힘들기 때문 - 양적 긴축은 기준금리 인하와 별개의 사안(odds with rate cuts) - 연준 자산 규모는 지금도 금리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중. 대차대조표 정책이 변동성을 심화시키면 안되겠지만 당장의 자산 축소 중단은 반대 |
| 1/10 | Michelle Bowman (연준 이사) | 매파,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통화정책 수준은 생각하는 것보다 긴축적이지 않을 가능성 -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한 선부른 예상은 금물 - 물가는 높은 수준이고 상방 압력 또한 존재. 인플레이션 진전은 멈춰있음(stalled) - 물가 우려는 10년 금리 상승의 일부 원인 -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본인은 물가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판단 - 12월 인하가 마지막이어야 함(the December interest cut should be the last) |
| 1/10 | Alberto Musalem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 중립,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상승률이 2.5~3.0% 사이에서 고착화될 우려가 커졌고, 이를 12월 FOMC에서 논의했음 - 본인은 9월 50bp 인하에 찬성했으나 지금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greater caution)을 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 9월과 현재 상황은 다름(the picture changed). 경제 데이터들은 강해졌고, 물가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 리스크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할 때 -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사람은 4명. 본인은 인하에 찬성했지만 점도표는 2회 인하 전망 - 올해 연준의 화두는 중립금리 - 양대책무 달성 측면에서 고용은 유심히 지켜봐야겠지만 양호한 상황(good shape). 그러나 물가는 지금도 목표 달성과 거리가 먼 곳에 위치(still out of bounds) - 개인적인 중립금리 추정치는 연준 구성원들보다 조금 높음. 현재 기준금리는 적절한 긴축 수준보다 소폭 완화적인 레벨 - 관세 문제는 일회성으로 그칠 것인지, 계속해서 여파가 있을 것인지 확인해야 함. 현 시점에서 관련한 연준의 대응을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 - 연준은 데이터에 기반한(textbook response) 결정을 내릴 것. 그러나 미국 경제는 정량적으로만 평가하고 운영할만한 규모가 아님(it's not a textbook).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 갖고 대응할 것 - 최근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근본적인 금리 레벨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인. 기간 프리미엄 상승이 이를 보여줌 - 장기 금리 상승은 두 가지 이유 때문. 첫 번째, 연준의 9월 50bp 인하로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감소했고, 두 번째, 대선 이후 미국 성장에 대한 낙관론 증가와 함께 불확실성도 같이 증가 |
| 1/11 | Austan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 | 비둘기파,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고용지표가 강력했던 것은 사실. 그러나 물가 자극 요인은 아님 - 생산성 향상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임금 상승세는 인플레이션의 2% 복귀를 지지 -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 성장을, 전망 대비 더딜 기준금리 인하도 생각해볼 필요 - 낮은 실업률, 추가 상승 자극 요인이 없는 물가 상황이라면 기준금리는 인하되는 것이 적절 - 현재 상황과 괴리가 있더라도 12~18개월 뒤 기준금리는 꽤나 낮은(a fair bit lower) 곳에 위치해야 함 - 관세정책 여파가 일시적일지, 항구적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 물가 관련 진전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 최근 물가 둔화세가 주춤한 것은 2024년 초 인플레이션 상승세 때문 - 지금까지 경기 과열 징후는 부재 - 만약 장기 금리 상승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이라면 이는 우려해야 할 요인 |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Fixed Income Calendar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 13 | 14 | 15 | 16 | 17 |
| <p>일본 휴장(성인의 날)</p> <p>(중국) 12월 수출입(위안화) (수출 전월비: 1.5%, 전년비: 5.8%) (수입 전월비: 5.3%, 전년비: -4.7%)</p> | <p>(한국) 국고 5년 입찰(2조 2,000억원) 11월 M2 통화공급 (전월비: 1.0%, 전년비: 6.5%)</p> <p>(미국) 12월 뉴욕 연은 1년 기대인플레이션 (전월: 2.97%, 전년: 3.01%) 12월 FNB 중소기업 낙관지수 (예상: 100.5, 전월: 101.7, 전년: 91.9) 12월 PPI (예상(m): 0.4%, 전월비: 0.4%, 전년비: 3.0%)</p> | <p>Schmid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예매, O) 연설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중립, O) 연설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X) 연설</p> <p>(한국) 국고 3년 입찰(2조원) 12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비: 1.6%, 전년비: 7.0%) (수입 전월비: 1.1%, 전년비: 3.0%) 12월 실업률 (전월: 2.7%, 전년: 3.2%)</p> <p>(미국) 12월 CPI, Core CPI (CPI 예상 전월비: 0.3%, 전년비: 2.9%) (Core 예상 전월비: 0.2%, 전년비: 3.3%) (CPI 전월비: 0.3%, 전년비: 2.7%) (Core 전월비: 0.3%, 전년비: 3.3%) 1월 뉴욕 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예상: -2.0, 전월: 0.2, 전년: -43.7)</p> <p>(유로존) 11월 산업생산 (전월비: 0.0%, 전년비: -1.2%)</p> <p>(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p> | <p>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중립, O) 연설 Goolsbee 시카고 연은 총재(반둘가파, O) 연설</p> <p>(미국) 12월 소매판매 (예상(m): 0.5%, 전월비: 0.7%, 전년비: 3.8%) 12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비: 0.0%, 전년비: 0.8%) (수입 전월비: 0.1%, 전년비: 1.3%) 1월 필라델피아 연은 업황 전망 (예상: -8.0, 전월: -16.4, 전년: -10.6)</p> | <p>(미국) 1월 NAB 주택시장지수 (전월: 46.0, 전년: 44.0) 12월 주택착공 (예상(m): 2.0%, 전월비: -1.8%, 전년비: -14.6%) 12월 산업생산 (예상(m): 0.3%, 전월비: -0.1%, 전년비: -0.9%)</p> <p>(유로존) 12월 CPI, Core CPI (CPI 전월비: -0.3%, 전년비: 2.2) (Core 전월비: -0.6%, 전년비: 2.7%)</p> <p>(중국) 4분기 GDP (예상 전분기비: 1.7%, 전년비: 5.0%) (전분기비: 0.9%, 전년비: 4.6%) 12월 산업생산 (예상(y): 5.4%, 전월비: 0.5%, 전년비: 5.4%) 12월 소매판매 (예상(y): 3.5%, 전월비: 0.2%, 전년비: 3.0%)</p> |
| 20 | 21 | 22 | 23 | 24 |
| <p>미국 휴장(마틴루터킹 생일)</p> <p>(한국) 국고 10년 입찰(2조 4,000억원)</p> | <p>(한국) 12월 PPI (전월비: 0.1%, 전년비: 1.4%)</p> <p>(유로존) 1월 ZEW 경기전망 (전월: 17.0, 전년: 22.7)</p> | <p>(한국) 1월 CSI 소비자심리지수 (전월: 88.4, 전년: 101.6)</p> <p>(일본) 일본은행 국제매입</p> | <p>(한국) 국고 20년 입찰(7,000억원) 4분기 GDP(속보) (전분기비: 0.1%, 전년비: 1.5%, 연간: 1.4%)</p> <p>(미국) 20년 국채 입찰(Reopening) (4.69%, 간접: 62.0%, 응찰률: 2.50배) 12월 선행지수 (전월비: 0.3%, 전년비: -3.5%)</p> | <p>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p> <p>(미국) 1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전월: -4.0, 전년: -9.0) 1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확정) (전월: 74.0, 전년: 79.0) 12월 기준주택 판매 (전월비: 4.8%, 전년비: 6.1%)</p> |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
